KOREATECH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5 기술로 세상을 잇다 KOREATECH 35th ANNIVERSARY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8.(수) 13:30 (2026. 11. 19.(목) 조간)

“인공지능(AI) 시대 직업훈련의 미래는?” 한국기술교육대, 개교 35주년 고용·평생직업능력개발 발전 전략 포럼 개최

- ‘수요·역량 통합’ 중심의 인공지능(AI) 시대 직업능력개발·고용서비스 미래 비전 모색
- 기업 AX·AI 교강사·STEP 콘텐츠·훈련 품질관리 등 5개 기관 혁신 전략 제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18일(수) 교내 다담 미래학습관 Hybrid SKY Hall에서 고용·평생직업능력개발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교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35주년 기념 고용·평생직업능력개발 발전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개교 35주년을 맞은 한국기술교육대가 11월 한 달간 이어가는 AI·미래교육 혁신 연속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4일 충청권 대학·기업 관계자들과 ‘2026 AI 융합포럼’을 열어 미래 대학교육 혁신 방향을 모색한 데 이어,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 고용·평생직업능력개발 분야의 AI 전환(AX) 비전과 기관별 중장기 발전 전략을 구체화했다. 행사는 ▲‘미래를 여는 고용·직업능력개발 – 비전과 전략’(세션 1)과 ▲‘AI 시대 평생직업능력 개발 – 혁신 성과와 발전 전략’(세션 2) 등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진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AI 시대 직업능력 개발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디지털·AI·에너지 전환(DX·AX·EX)과 초저출생·초고령화, 대·중소기업 간 훈련 참여율 격차(53.2% 대 5.8%) 및 수도권 집중(68.5%) 등 복합적 환경 변화를 진단하며, AI 시대에는 ‘직업명’이 아닌 ‘과업·스킬·업무흐름’ 중심으로 교육훈련 단위가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단순 명령어 입력을 넘어 업무 설계와 결과 검증을 총괄하는 '에이전트 리터러시(Agent Literacy)'와 일과 학습을 결합한 현장 중심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기업·개인) 중심으로 ▲자격증 중심에서 실제 역량 인증으로 ▲분절적 운영에서 경력·훈련·자격·고용의 통합 생태계로의 '3대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핵심 역할로 능력개발교육원(교강사)·온라인평생교육원(STEP 콘텐츠)·직업능력심사평가원(훈련 품질) 등 '3원 협력 플랫폼'을 통한 수요 발굴-콘텐츠 개발-교강사 육성-품질·성과 환류 모델을 제시하며, "이제는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AI 시대 고용서비스의 미래 그리고 KOREATECH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 교수는 저성장 고착화와 초고령사회 진입, 청년층 감소 일자리의 94%가 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충격을 진단하며, 단순 웹 포털 전산화에 머문 기존 체계를 넘어 서비스 전 과정을 AI 활용 전제로 재설계하는 3세대 'AI-Native 고용서비스'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교육혁신처 주관으로 교내 5개 기관(미래교육혁신처, 능력개발교육원, 온라인평생교육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산학협력단)이 참여해, 축적된 혁신 성과를 발판으로 각 기관이 추진할 발전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먼저 산학협력단(강형주 부단장)은 '기업 AX를 연결하는 산학협력모델 성과와 비전'에서 AI 특화 공동훈련센터(고용노동부), 충남천안 AX실증산단 구축·제조AX 산학혁신파크(산업통상부), 지자체 AI교육(천안시) 등 4대 사업을 연계한 '수요발굴-맞춤형 PBL-현장적용-PoC 실증-지역확산' 전 주기 지원체계의 고도화 비전을 밝혔다. ㈜엔스퀘어(AGV 비전 AI·폐쇄망 로컬 LLM 탑재), ㈜엘디티(경량화 화재 예측 모델 자체 개발 및 특허 출원), ㈜티에스이(반도체 공정 데이터 통합·특화 챗봇 구축) 등 현업 문제해결형

PBL 성과를 발판으로, 향후 기업의 자체 AX 자립기반을 내재화하고 현장 데이터를 대학의 교육·연구 자산으로 환류해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미래교육혁신처(정승현 센터장)는 '피지컬 AI 기반 직업훈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통해 현실을 인식·판단해 로봇과 설비로 행동하는 피지컬 AI 시대에 대응한 '한기대형 교·강사 교육체계'를 제시했다. 공통 기초 이후 제조·로봇 분야로 심화되는 ▲기초 실습(L1) ▲가상환경 학습(L2) ▲실물 통합 실습(L3) ▲신규 실습교육 개발(L4)의 4단계 역량 체계를 확립하고, 스마트팩토리 디지털 트윈과 협동로봇·자율주행·프레스 공정 등을 연계한 가상·실물 통합(Sim-to-Real) 실습환경 및 특화 데이터셋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국 직업훈련기관과 표준 교육모델을 공동 운영·확산할 전략이다.

능력개발교육원(박석용 본부장)은 'AI 교·강사 아카데미 운영성과와 발전 방향'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정책에 발맞춘 훈련 교·강사 교육 체계 전면 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신규 양성 ▲역량 강화 ▲직종 전환의 3대 트랙과 '기초·교직·직종 AI' 3단계 역량 체계, 그리고 교과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한 애자일(Agile) 교육운영 체계를 고도화해 왔다. 2027년부터는 전체 교·강사 교육과정을 AI 기반 교육으로 전면 전환해 산업현장의 AI 전환을 이끄는 전문 교원 양성의 국가 표준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온라인평생교육원(유지호 센터장)은 'STEP AI 콘텐츠 개발·운영 및 확산 전략'을 통해 AI 리터러시부터 직무·산업별 AX 과정에 이르는 콘텐츠 포트폴리오와 타 부처 플랫폼·지자체·유관기관 맞춤형 확산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AI는 지원자, 사람은 최종 결정자'라는 품질관리 원칙 아래 오는 2027년 3월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AI 학습비서'를 정식 오픈하고, 'STEP for KOREATECH' 및 교내 기관 간 콘텐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규교육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아우르는 지능형 평생학습 허브로 도약할 계획이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정선정 센터장)은 'AI 시대 직업훈련 변화와 품질관리 전략'에서 전 산업·직무를 포괄하는 정부의 AI 융합훈련 확대 기조와 신설된

KDT(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에 발맞춘 훈련 품질 혁신 전략을 내놓았다. 기관단위 역량심사 체계를 정교화하는 한편, ▲기술변화 대응성 ▲기업 참여 실효성 ▲교수학습 혁신성 ▲성과 중심 품질관리 ▲기관 혁신역량 지원 등 '5대 품질관리 고도화 전략'을 본격 추진해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직업훈련 질적 도약을 견인할 구상이다.

유길상 총장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 35년간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과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해 왔다"라며 "AI 시대를 맞아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학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는 허브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술교육대는 오는 24일부터 3일간 '2026학년도 에듀페스타(Edu-Festa)'를 열고 신교수법(PBL) 강좌와 학생 학습성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개교 35주년 기념 AI·미래교육 혁신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홍보팀	책임자	팀 장	황의택 (041-560-1680)
		담당자	담 당	김지수 (041-560-1681)
담당 부서	미래교육지원본부 미래교육지원팀	책임자	본부장	홍종희 (041-580-4702)
		담당자	담 당	이승율 (044-580-470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